



恩津宋氏宗報

홈페이지 : ejsong.co.kr

E-mail : ejs0835@hanmail.net

은송인(恩宋人)의 정신

충효(忠孝)의 정신

고결(高潔)한 선비정신

은덕불사(隱德不仕)의 정신

송조목족(崇祖睦族)의 정신

■發行人/宋錫根 ■編輯人/宋在億 ■印刷人/宋富鎬 ■發行處/恩津宋氏大宗會 大田廣域市 大德區 同春堂路 161 ■電話 (042)256-0835 / 電送 (042)633-0531

=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쌍청당” 새로이 단장 =

은덕불사 정신이 생동하는 귀중한 은송인의 문화유산

쌍청당은 은송의 중시조 휘 유(愾)께서 세종 14년(1432년)에 지은 당(堂)으로, 세종 25년(1443년) 난계 박연이 “쌍청당”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세종 27년(1445년) 취금헌 박팽년, 세종 28년(1446년) 괴애 김수온이 지은 기문이 있으며, 세종 28년(1446년)에 박팽년이 지은 기문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어 세상에서 보배로 여기는 바이며, 쌍청당 중시조님의 은덕불사 정신이 생동하는 귀중한 은송의 문화유산이다.

2023년 11월 1일자 종보 제197호 2면에 실린 바와 같이 대종가 경내에 있는 쌍청당(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의 문화재 보수공사를 2023년 8월에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완료 예

정이었으나 지붕을 전면 해체하고 보니 서까래 등의 90% 이상이 썩먹고 썩은 것이 발견되어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고,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는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까래를 100%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하였으며,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쌍청당의 보수공사가 지체되었다.

대전광역시와 대덕구청에서는 추가 공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당초 1억 7천7백만원의 사업비(시비85%, 구비 15%)에서 1억2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2024년 3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6월 중순에 준공을 하였다.

또한 대종회에서는 2024년 7월 30

일 대전광역시의 문화재위원과 대덕구청 관계자를 현장에서 면담하여 쌍청당 주변의 수목 전지작업과 마당 배수시설, 마당진입로 정비사업, 담장 밖의 배수로 설치와 대나무와 철조망 제거작업, 담장을 높이는 방안 등을 건의하였으며, 2025년도에 대전광역시와 대덕구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청당의 단청작업은 교체한 목재 부분의 건조

관계로 2~3년후에 새롭고 아름다운 자태로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서 그 모습을 보일 것을 생각하니 은송인의 자긍심이 흥기한다.

(대종회장 송석근)



▲ 새롭게 단장된 쌍청당의 모습

2024년도 대종회 자금운영 상황 점검

대종회 종규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상반기 대종회 자금운영 상황점검을 2024년 7월 18일 09:00부터 대종회 사무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점검에는 송용순(동춘당 문정공파)감사와 송재무(동파공파)감사가 참석하였으며, 송신현(주부공파)감사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먼저 점검에 앞서 송석근 대종회장은 감사들에게 대종회 자금운영 상태를 면밀하고 냉정하게 살피달라는 인사의 말씀이 있었다.

이어서 두 분의 감사는 대종회에서 제출한 자료인 법인본점(원일빌딩)과 법인지점(오성빌딩)등의 정기에금과 보통예금의 현황 내역과 은행에서 발행한 잔고증명 그리고 통장 내역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였고, 이어서 대종회의 건물 임대현황, 연회비 성금 내역, 미수금 현황을 점검하고 세입 세출외현금과 쌍청회관 보관금 관리 상태와 2023년도 자금운영상황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상세히 점검하였다. 이날 자금

운영상황 점검은 오후까지 이어졌으며, 점검을 모두 마친 후 2023년도 지적사항은 모두 시정조치 완료 되었으며, 2024년도 자금

운영 상태도 정기예금이 증액하는 등 관리가 원만하게 잘되고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2024년도의 자금운영상황 점검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2024회계년도 결산 감사 보고서 종합적으로 내는 것으로 강평하고 모두 마쳤다. (장재유사 송인한)



▲ 회계감사

2024년 고문 간담회 개최

대종회에서는 2024년 7월 15일 11시 은진송씨 대종회를 위해 헌신하신 고문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노고와 지도 편달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였다.

참석에는 대종손 송교진과 송범섭, 송준빈, 송동호, 송태영 고문이 참석하였다. 이날 고문들과의 대화에서는 2024년



▲ 고문 간담회

도 상반기 주요 중무보고와 쌍청회관 인수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오

찬 후 쌍청회관을 방문하여 회관과 관리자, 식당동의 활용방안으로 대종회 운영의 중심지로서 중중의 영화지로 활용하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종무유사 송인집)

대종회 수첩 발간(發刊)



▲ 대종회 수첩

2022년 3월 대종회 종무수첩 발간후 대종회 임원이나 각 파 공사원, 파유사의 변동이 많아 2년 5개월만에 다시 발간하게 되었다. 은진

송씨 유래비(대전 중구 뿌리공원), 은송인의 정신, 종기에 대한 맹세, 은진

회장, 파유사회 의장, 부의장, 감사, 상무유사, 전례유사, 포상심사위원, 장학위원, 문화행사위원, 종보편집위원과 집행부, 39개파 공사원 및 파유사, 각 종중 사무실, 지역종친회를 인물사진과 함께 수록하였다. 은진송씨 대종회 종규와 선대묘소 소재지 및 세일사 일정, 축문, 세일사 흥기, 조선왕조 연호 조건표, 조선왕조 관직(품계)표 등을 넣어 발간하여 종중일에 참고할 종인에게만 배포할 것이다.

이번 수첩에는 선대 세일사 흥기를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세일사 봉행을 쉽게 알 수 있게 보강하였다. (종무유사 송인집)

2024년도 쌍청당상 후보자 추천

2024년 11월 1일(음력 10월 1일). 쌍청당 세일사일에 시상하는 쌍청당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기 바랍니다. 은송의 남자 자손 중 대종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도가 지대한 자 등을 심사를 거쳐 시상 합니다.

* 은진송씨 포상심사규정 제5조 참조(홈페이지 : 포상/장학)

1. 접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61. 원일빌딩 6층 은진송씨 대종회 (우)34406 / E-mail : ejs0835@hanmail.net

2. 접수마감 : 2024년 10월 2일(화)

3. 제출서류 :

- 가. 각 파 공사원 또는 시도광역종친회장 추천서 1부
- 나. 공적조서 1부 (객관적으로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다. 주민등록 등본 1부
- 라. 반명함판 사진 1매

4. 각 파 공사원 및 시도광역종친회장에게 제출하여 공사원 또는 시도광역종친회장이 대종회로 공문 발송

삼가공파 송인석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피선



▲ 송인석 의원

송인석 시의원(은진송씨 삼가공파 25세손)은 삼가공파 송복영 공사원의

2024년 7월 15일 대전시의회 제 280회 임시회에서 송인석 시의원(국민의힘)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차남으로 대전시 동구 시의원에 당선되어 활발한 시정활동으로 은송의 명예를 거양하고 있으며, 관동묘려 선대조 모시는 일 등 대중회 종사에 적극적인 종인이다.

송인석 시의원은 “백마디 말보다는(의원 모두가)함께 하는 산업건설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화합과 단합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의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선 포부를 밝혔다.

우암문정공파 임원 대중회 방문

2024년 6월 28일 우암문정공파 송안호 공사와 송봉희 총무는 우암문정공파 신임 재경총친회장 겸 봉곡정간공종송동호 공사와 송중호 봉곡정간공 총무와 함께 인사차 대중회를 방문하였다.



▲ 우암문정공파 임원 대중회 방문

송석근 대중회장은 우암문정공파 임원들이 대중회를 방문한데 대하여 진

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고, 송자고택 주변 개발에 대하여 대전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을 설명하고 우암문정공파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오찬을 함께 하면서 대중회와 파종중간의 여러 가지 발전적인 대화와 덕담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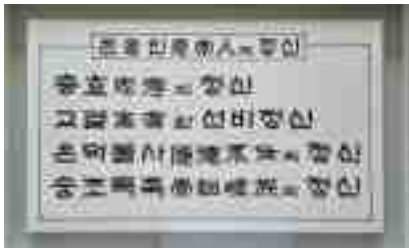
“은송인의 정신” 액자 기증



▲ 송준영

연안공파 隱谷宋俊永은 우리 “은송인의 정신”을 예서체로 써서 정성으로 표구하여 2024년 6월 26일 대중회에 기증하였다. 이는 대중회사무실을 방문하는 종인으로 하여금 은송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종친간에 화목을 돈독히 하자는 의미이다. 은곡 송준영은 은진송씨 종보 창간호부터 사용중에 있는 종보제자 “恩津宋氏宗報(은진송

씨종보)”를 써서 대중회에 기증한 종인으로 대전충남서예대전 대상 등을 수상하고, 대한민국서예대전 입,특선 등을 수상한 추천작가, 초대작가로 심사위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훌륭한 은송의 書藝家이다.



▲ 은송인의 정신 액자

지평공 재실 정화 및 잡초 제거

주산동 지평공 재실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보일러실은 재실과는 어울리지 않고, 담장 밖에 자라는 뽕나무가 창고 건물 지붕 위까지 덮어 담장과 기와지붕이 훼손되고 있어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대적인 뽕나무 제거 작업 및 보일러실 철거 작업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지평공 산소 입구 표지석이 나무가 무성하고 그늘져 잘 보이지

않아 주변의 잡목을 시원하게 정리하고 재실 안팎의 잡초를 말끔히 제거하였다.

앞으로도 대중회에서는 선조님 묘역과 재실, 종중 소유 재산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을 방문 점검하여 문제되는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자 한다.

(장재유사 송인한)



▲ 시원하게 철거된 보일러실



▲ 지평공 산소 입구 표지석

상서종중 변창을 위한 간담회(上書宗中懇談會)

송창공파 상서종중(16世 諱 天錫, 17世 諱 漢卿)에서는 말복을 앞둔 8월 12일에 (대덕구 신대동소재 ‘항가원’식당) 대중회, 목사공종중, 송창공파 이하 종중의 임원, 파유사 일가 20여분을 모시고, 은송인의 정신과, 송조돈 목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상서종중 변창을 위한 간담회

이날 상서종중 송치안 회장의 사회로 참석자 모두를 소개하고, 목사공종중 송서호 회장은 “우리 후손들은 선조님의 유훈과 업적에 관해 공부하고, 종중과 종인간 화합과 종중의 발전을 위해서 대중회와 上代종중 임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여간 성의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다.”라며 덕담을 하였다.

이어서 송창공파 송만영 대중회 파유사께서 은송인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는 건배제안과 함께 준비한 점심을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90여분간 식사를 진행하였다.

참석자 : 대중회(송인집 총무유사, 송인한 장재유사), 목사공종중(송서호 회장, 송기영 총무유사, 송화영 장재유사), 송창공파 15명(송구영 회장, 송만영/송인봉 대중회 파유사, 참판동지공 송용섭 회장 등)

(송창공파 상서종중 회장 송치안)

<신간안내>

송창공파 송달영 시집 발간

송달영(宋達永) 시인은 은진송씨 24세손으로 대덕구 오정동에서 태어나고 자라 은행원, 전매청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 후 70이 다된 나이에 시작(詩作)에 대한 정규 교육을 받은 바 없이 혼자 생각나는 것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을 시집으로 묶어 2021년도에



▲ 6집(향)

제1집(다령시집)을 발간하고 이어서 2집(상사화), 3집(지나감), 4집(가로수길), 5집(길), 6집(향)까지 발간하였다.



▲ 5집(길)

2024년에 발간한 6집에는 詩 130首가 있고 그중 대표시가 “쫄”이다. 시인은 항상 메모지를 갖고 다니다가 사물이나 풍경을 마주하

여 시상이 떠오르면 즉시 메모하였다가 정리한다고 한다. 쉽게 읽혀 지는 시인의 시쓰기를 계속 응원한다.

종보 제184호(2021.9.1.)에 소개한 천재 요절시인 송유하를 1면을 채워 소개하였고, 종보 제151호(2016.3.1.)에 보도된 송근영씨는 대전일보사가 신춘문에 수상자 중

최근 3년간 창작집을 1권 이상 발간하고 창작활동을 한 작가에게 주는 대일 문학상을 2016. 1. 20. 수상한 동시(童詩) 작가로 송달영, 송유하, 송근영 이들은 모두 대덕구 오정동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분들이며 송창공의 후손들이다.

(송창공파 공의원 송구영)

<공의원 및 파유사 변경>

파명	날 짜	내 용
삼가공파	2024.08.20	파유사 송우영(宋又永)을 송일영(宋日永)으로 변경
우암문정공파	2024.08.09	파유사 송석근(宋碩根)을 송영무(宋永武)로 변경

쌍청당·지평공 세일사 안내

쌍청당 부군과 지평공 부군 세일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쌍청당 세일사를 모신 후에는 쌍청회관에서 정기총회와 쌍청당상 시상식이
거행될 예정이오니 자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쌍청당 세일사	11월 1일 (음력10월1일)	금요일	11시	대전 동구 판암동
지평공 세일사	11월 10일 (음력10월10일)	일요일	11시	대전 동구 주산동

여민동락(與民同樂)

군주가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즐긴다는 뜻이다.

퇴계가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에 돌아와
제자 들을 양성한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자,
일찌기 영의정의 벼슬을 지낸 바 있는 쌍취헌 권철이 퇴계를 만나고자
도산서당을 찾아 갔다.

권철은 그 자신이 영의정의 벼슬까지 지낸
사람인데다가 그는 후일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왜적을 크게 격파한 만고
권을 장군의 아버님이기도 하다.

권을 장군은 선조 때의 명재상이었던
이항복의 장인이기도 했다.

서울서 예안(안동시 예안면)까지는
5백50리의 머나먼 길이다.

영의정까지 지낸 사람이 머나먼 길에 일개
사숙의 훈장을 몸소 찾아온다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권철은 퇴계를 친히 방문하기로
했던 것. 도산서당에 도착 하자 퇴계는
동구 밖까지 예의를 갖추어 영접하였다.
그리하여 두 學者는 기쁜 마음으로
학문을 토론하였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식사 때가 큰
문제였다. 끼니때가 되자 저녁상이
나왔는데, 밥은 보리밥에 반찬은 콩나물국과
가지 잎 무친 것과 산채뿐으로 고기불이라고는
북어 무친 것 하나가 있을 뿐이 아닌가?

퇴계는 평소에도 제자들과 똑같이 초식
생활만 해 왔었는데, 이 날은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북어를
구해다가 무쳐 올렸던 것이다.

평소에 산해진미만 먹어오던 권철
대감에게는 보리밥과 소찬이 입에 맞을
리가 없었다.

그는 그 밥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몇 순갈 뜨는 척 하다가 상을 물려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 퇴계는 다음날 아침에도
그와 똑같은 음식을 내놓았다.

권철대감은 이날 아침에도 그 밥을
먹어낼 수가 없어서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몇 순갈 떠먹고 나서 상을 물려버렸다.

주인이 퇴계가 아니라면 투정이라도
했겠지만, 상대가 워낙 스승처럼 존경해
오는 사람이고 보니 음식이 아무리
마땅치 않아도 감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권철대감

은 도산서당에 며칠 더 묵어가고 싶어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더 묵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다음 날은 예정을 앞당겨
부랴부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권철
대감은 작별에 앞서 퇴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렇게 만나고 떠나게 되니 매우
고맙소이다. 우리가 만났던 기념으로
좋은 말을 한 말씀만 남겨 주시지요”

“촌부가 대감 전에 무슨 여쭙
말씀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대감께서
모처럼 말씀하시니 제가 대감에게서
느낀 점을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퇴계는 옷깃을 바로 잡은 뒤에
다시 이렇게 말했다.

“대감께서 원로에 누지를 찾아
오셨는데 제가 융숭한 식사대접을
못해드려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감께 올린 식사는
일반 백성들이 먹는 식사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는 성찬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먹는 음식은 깻보리밥에 된장 하나가
고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감께서는 그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나라의 장래가
은근히 걱정되옵니다.

무릇 정치의 요체는 여민동락(與民同樂)
에 있사운데, 관과 민의 생활이
그처럼 동떨어져 있으면 어느 백성이
관의 정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대감께서는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
시기 바랄 뿐이옵니다.”

그 말은 폐부를 찌르는 듯한 충언이
었다. 퇴계가 아니고서는 영의정에게
감히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직간이었
다. 권철대감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수그렸다.

“참으로 선생이 아니고는 누구에게
서도 들어볼 수 없는 충고이십니다.

나는 이번 행차에서 깨달은 바가
많은 집에 돌아가거든 선생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능지성인(能知聖人)이라고나 할까.
권철 대감은 크게 깨달은 바 있어
퇴계의 충고를 거듭 고마워하였다.

그리고 올라오자 가족들에게 퇴계
의 말을 자상하게 전하는 동시에
그날부터 퇴계를 본받아 일상생활을
지극히 검소하게 해 나갔다고 한다.

(충무유사 송인집 옮긴글)

〈선대 세일사 일정〉

세일사 날짜	선 대	묘소 소재지	주관자
음 3월 10일	류조비,진사공(克己)	대전 동구 마산동	대중회
〃	추원사(1~4세)	대전 동구 마산동	대중회
음 10월 1일	쌍청당(愼)	대전 동구 판암동	대중회
음 10월 3일	사우당공(國澤)	충북 보은 수한면 발산리	송진팔 010-5450-3533
음 10월 5일	평산공(斯敏)	대전 동구 사성동	정랑공 종중
〃	정랑공(順年)	대전 동구 사성동	정랑공 종중
음 10월 9일	감역공(奎洛)	대전 동구 마산동	송춘영 010-2878-9114
〃	안소당(國憲)	충북 청주 남일면 두산리	송우영 010-3426-4902
음 10월 첫째 토요일	영천공(昉)	경북 영주 평은면 지곡리	송영식 010-3860-8433
음 10월 초정일	후암공(栢年)	경남 함양 서하면 황산리	송주영 010-6407-3325
음 10월 10일	지평공(繼祀)	대전 동구 주산동	대중회
〃	사직공(繼中)	대전 동구 사성동	사직공 종중
〃	장사랑공(胡年)	대전 동구 마산동	송병수 010-8574-4464
〃	주부공(眉年)	대전 동구 사성동	송광현 010-8329-2495
〃	참봉공(世良)	충북 청주 남일면 화당리	송문호 010-5466-6215
〃	서부공(龜壽)	충북 청주 남이면 사현리	송문호 010-5466-6215
〃	도사공(應期)	충북 청주 남이면 문동리	송성호 010-3457-8230
음 10월 11일	충순위공(世勳)	경남 합천 대정면 유전리	송호덕 010-8626-7201
〃	부원당공(時炎)	충남 계룡 엄사면 도곡리	송재강 010-8811-5453
〃	삼기당공(龍壽)	대전 동구 주산동	송형헌 010-3414-4797
음 10월 12일	연안공(奎淵)	전북 무주 부남면 굴암리	송기선 010-7767-2489
〃	수옹공(甲祚)	대전 동구 판암동	송재열 010-6309-3108
음 10월 13일	습정공(邦祚)	충북 청주 남일면 화당리	송성호 010-3457-8230
음 10월 14일	빙호공(時琰)	충북 청주 남이면 외천리	송재은 010-2212-5009
음 10월 15일	목사공(逢年)	대전 동구 이사동	목사공종중 042-632-7733
〃	양근공(汝霖)	대전 동구 이사동	목사공종중 042-632-7733
〃	송지공(世英)	대전 동구 이사동	송용백 010-5426-5478
〃	선무랑공(汝楨)	대전 동구 이사동	송철기 010-5428-4366
〃	진산공(時默)	대전 동구 판암동	송구호 010-4756-8813
음 10월 16일	안악공(世勳)	대전 동구 이사동	송기선 010-7767-2489
〃	집의공(世勉)	대전 동구 이사동	송구영 010-8821-0909
〃	청풍공(世勳)	대전 동구 주산동	송백순 010-3118-0689
〃	송담공(柟壽)	대전 동구 이사동	송운섭 010-5456-3113
〃	판관공(世雄)	대전 동구 이사동	송용범 010-4431-0665
〃	통정공(世勳)	대전 동구 판암동	송석찬 010-5403-2100
〃	진사공(世勳)	대전 동구 판암동	송석환 010-4252-8781
〃	잠부공(汝礪)	대전 동구 주산동	송만호 010-2446-9736
〃	동파공(汝翼)	대전 동구 마산동	송재무 010-6414-7900
〃	안동공(汝諧)	대전 동구 비룡동	송규범 010-3225-1223
〃	가평공(世忠)	대전 동구 비룡동	송규범 010-3225-1223
〃	감역공(璉)	대전 동구 이사동	송구영 010-8821-0909
〃	통례공(興門)	대전 동구 이사동	송구영 010-8821-0909
음 10월 17일	참판공(樺壽)-청죽당	대전 동구 이사동	송인원 010-5401-4881
〃	추파공(麒壽)	대전 동구 주산동	송계용 010-4401-1151
〃	임천공(應端)	대전 동구 이사동	송용순 010-5450-7383
〃	영천공(爾昌)	대전 동구 이사동	송용순 010-5450-7383
〃	송월재공(希得)	대전 동구 이사동	송종영 010-8803-5678
〃	안동공(希建)	대전 동구 이사동	송복영 010-5406-0096
〃	쌍계당공(應祥)	대전 동구 비룡동	송철기 010-5428-4366
〃	참판공(希遠)-학유공	대전 동구 이사동	송운섭 010-5456-3113
〃	판서공(國銓)	대전 동구 이사동	송인한 010-5408-7027
〃	취옹당(希命)	대전 동구 이사동	송인원 010-5401-4881
〃	고창공(國士)	대전 동구 이사동	송태영 010-8323-7524
〃	삼가공(桂壽)	대전 동구 이사동	송복영 010-5406-0096
〃	장령공(希進)	대전 동구 이사동	송태영 010-8323-7524
음 10월 18일	호군공(國重)	대전 동구 이사동	송덕영 010-3005-6393
〃	송창공(綏祿)	대전 동구 판암동	송구영 010-8821-0909
〃	자산공(世協)	대전 동구 판암동	송이영 010-5456-8997
음 10월 19일	제월당공(奎濂)	대전 유성구 외삼동	송인무 010-5597-7762
〃	송지공(玪)	대전 동구 이사동	송진팔 010-5450-3533
〃	금암공(夢寅)	대전 동구 이사동	송진팔 010-5450-3533
양 3월 마지막일요일	장성공(時襄)	충북 보은 수한면 교암리	송영래 010-5434-1976
양 4월 둘째 일요일	무주공(時杰)	충북 영동 심천면 질현리	송재열 010-6309-3108
음 10월 셋째 일요일	침사공(世畧)	대전 동구 이사동	송서호 010-5409-3211
양 11월 첫째 일요일	우봉공(應光)	경기 고양 신도면 현천리	송영준 010-6202-6987
양 11월 둘째 토요일	장사랑공(栢壽)	충북 충주 엄정면 논감리	송한섭 010-9321-7955
양 11월 둘째 일요일	모은공(基想)	전북 고창 해리면 평지리	송덕호 010-3749-7377
양 11월 셋째 토요일	규암공(麟壽)	충북 청주 문의면 남계리	송재웅 010-5308-0765

제사 날짜		선조	제사 장소	주관자
不桃之典	음 12월 1일	동춘당 문정공(浚吉)	대전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공 종손
不桃之典	음 6월 8일	우암 문정공(時烈)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우암공 종손
不桃之典	한식전일요일	아은 충현공(時榮)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아은공 종손
不桃之典	음 7월 13일	늑천공(明欽)	경남 진주시 초창로	늑천공 종손

[선대 유적 탐방 (先代 遺跡 探訪)]

〈전남 장흥(長興) 장천재(長川齋)〉 II

조부(祖父)의 글씨를 새긴 현판은 두 점이였다. 한 점은 앞서 본 성재(誠齋)이고, 다른 한 점은 유무변(遊無邊)이라고 쓰여진 현판이였다. 앞서 본 성재가 해서체로 정격으로

쓴 글씨라면, 이 유무변이라는 글씨는 초서체로 썼는데, 파격으로 쓴 글씨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한 점의 예술작품 같다.

무변(無邊). 변이 없다는 것은 경계가 없다는 뜻으로 마음속에 구애됨이 없는 자유로움을 뜻하며, 그 자유로움 안에서 논다는 뜻이라고 한다. 자유로움을 뜻하는 글씨니 파격으로 쓰셨겠다 싶다.

유학자로서 한없이 조심하고, 딱딱한 예의 규범 속에서 평생 사셨을 것 같은 분이 이렇게 자유로운 글씨체로 자유를 뜻하는 글을 남기니, 조부께서 추구했던 이상이 어떠했을 것인지 더욱 궁금해진다. 나이 칠십(七十)이면 중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지 않음)라 한다더니, 그런 자유로움을 표현한 말인가도 싶었다. 자유를 뜻하는 문구에 한없이 자유로운 글씨체이지만, 글씨 한켠에선 정제된 학자의 고고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유학자라고 하여 마냥 틀에 박히고 예의범절만을 따지는 그런 상상 속의 고루한 유학자는 아니셨을 것이라는 느낌이다. 무변에서 놀다, 유무변(遊無邊). 글씨를 보고 있노라니 봉강정사 솔밭을 여윌듯 거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진다.

성재誠齋와 유무변遊無邊. 이 글씨들은 회은 위원량(悔隱 魏元良, 1882~1945) 선생의 증손 위정복씨가 당신의 집에 전해 내려오던 현판을 기증한 것이다. 회은 위원량 선생은 장흥의 기동마을에서 1882년 1월 15일 父 경은(耕隱) 위계선(魏啓善 1858~1917)과 母 인천이씨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모는 지역에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여 천석꾼이라 불리었고, 근검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여 향촌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가문은 전통적 유학을 중시하여 연재(淵齋, 宋秉璿) 선생의 문인으로 학문이 뛰어난 족조(族祖) 만회(晩悔) 위국채(魏國采 1846~1921), 족

숙(族叔) 행은(杏隱) 위계훈(魏啓勳 1866~1942)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이 뛰어나면서 금석문에 관심이 특별하였다.

연재 송병선(淵齋 宋秉璿 1836~1905) 선대의 문인이었던 그는 아마도 대전에도 연재 선대를 만나러 방문하였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사동의 난곡 선생과도 교류가 있었지 싶다. 별장 송암정의 별칭이 영이루(詠而樓)인 것만 보아도 그렇다. 사란이의 영귀대(詠歸臺)가 연상이 된다. 회은 선생에게 노년의 약재노인(난곡)이 글씨를 써주던 장면이 꼭 눈앞에 그려지는 것만 같다. 글씨를 받아온 회은(悔隱) 선생은 이를 나무에 새겼고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었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해주셨다.



▲ 회은 위원량 선생

장흥 위씨 반계공파 13세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이 전시관이 생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전시관에 걸려있는 초상화의 주인공 공, 오헌 위계룡 선생이 당신의 증조부라고 소개한다. 난곡 선생을 그린 채용신 선생이 그린 초상화여서 그랬을까. 처음 와서 유물을 구경할 때 인상 깊게 보았던 초상화의 주인공이었다. 오헌선생은 항일 의병활동을 하였고, 현 오헌(梧軒) 고택의 모습을 완성한 분이었다고 한다.

이 전시관의 대부분이 자신의 집안에서 먼저 기증한 책들과 유물들이라고 소개하였는데, 당신의 형제들이 물려받은 유물들을 먼저 기증하여 전시관을 세우고, 이후 위씨 집안들에 협조를 구하며 유물을 모았다고 한다. 조상님의 유물을 선뜻 내놓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그럼에도 이처럼 노력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집안의 유물이 후대로 잘

사우당효정공파 공사원 송진팔

보존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그 덕분에 조상님 글씨를 구경하였다. 집안에 이렇게 앞장서는 인물 하나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위씨들이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진송씨와 장흥 위씨는 대대로 깊은 사이였습니다.”

전시관장이 운을 댔다. 장흥 위씨들은 전남지역에서 노론(老論)으로 세가 컸기에 은진송씨와 수백 년간 대대로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당신의 증조부 오헌선생과 난곡선생에게 글씨를 받은 회은선생은 모두 연재 송병선 선생의 제자였으며, 그를 이곳까지 초빙하여 교육받았기에 장흥에는 연재 선생의 제자가 많았다고 한다. 얼마나 세가 컸으면, 또 교육열이 높았기에 당대 이름이 높았던 연재 선생을 여기까지 모셨겠는가. 들을수록 감탄이 나왔다. 존재 위백규 선생 이야기, 원감국사 이야기 등등을 자세히 듣고, 장천재(長川齋)로 향했다.

장흥부사로 계셨던 송기로 선대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은진송씨가 장흥에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깊은 인연인 줄은 알지 못했다. 송기로 선대는 이사동 출신으로 조선말기 벼슬길에 올라 장흥부사(長興府使)를 두 번이나 역임했던 분이다. 그리고 내가 그 선대를 잘 알고 있는 것은 그가 도곡 종운(道谷 鍾雲) 선대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 추원루, 송기로 선대 친필

도곡공(道谷公)은 이사동 오도산 아래에서 난곡 선생과 함께 서당을 열어 강학을 같이 시작한 분이다. 난곡(蘭谷)과 도곡(道谷) 선대 두 분은 같은 동갑내기로 이사동에서 25세 무렵부터 선곡서당을 열어 몽학(蒙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둘 다 공부를 좋아하고 몽학을 계몽하

고자 하는 의기가 투합하였으니,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도곡공은 불행히도 31살에 단명(短命)하고 만다. 그 뒤로 난곡 선생은 홀로 이사동에서 강학을 이어갔으니, 같이 공부하고 일하던 친구를 일찍 잃고, 상당히 외로웠으리라는

추측이다. 이 도곡공과 송기로 선대에 대해 집안 문집(文集)에서 기록이 이미 여러 군데에서 나오니 잘

알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시관장님도 송기로 선대에 대해 잘 알고 계셨다. 그리고 관장님과 함께 장천재에 오르며 송기로 선대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다.

장천재 長川齋는 17세기경 위동식, 위동헌 형제가 부친 위정렬 선생이 타계하자 시묘를 위해 처음 지은 묘각(墓閣)이라고 한다. 3년 상을 마치고 문중에서 그 구조와 규모를 확대해 지었다고 전한다. 호남 3대 실학자 중 한 사람인 존재 위백규 선생(1727~1798)도 이곳에서 수학(修學)하고, 학규(學規)를 지어 강학하였으며, 이곳에서 실학저서 100여권을 지어 후세에 남겼다고 한다.



▲ 송기로 선대 친필 현판

- 정갈한 글씨가 그의 인품을 느끼게 한다.

또한 장천재는 제각이며 강학소이자 손님들이 오면 접대도 하는 곳이라고 한다. 장천재의 방마다 편액을 붙여 이름을 지었는데, 방마다 이름을 붙인 것을 보니 영귀대의 봉강정사가 생각난다. 봉강정사의 풍욕헌, 의두헌, 양로실 등 방마다 붙은 이름들 때문이다.

장천재라는 당호 편액이 있고, 칸마다 별호인 부계당(俯溪堂), 추원루(追遠樓), 열락헌(悅樂軒), 즉휴루(則休樓) 등의 편액이 걸려 있었는데 이중 추원루(追遠樓)는 송기로 선대의 친필이다. 송기로 선대의 현판이 보존된 것을 보면 장흥 위씨들과 관계가 돈독했던 것 같다.

(다음 호에 계속)

문중에 알려지지 않은 은진송씨 초상화 소개 [1]

동춘당문정공파 以堂 宋成彬

우리 은진송씨 선조들은 세상의 명망에 비해 초상화가 적은 편이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터럭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곧 다른 사람(一毫不似便是他人)”이라는 관념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즉 초상화에 대하여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의미, 이를 빗진(逼真)하다. 진실한 것에 가까이 가다. 는 뜻이다.

예를 강조한 우리 문중에서는, 초상화는 현상을 똑같이 그릴 수 없으니, 제사에서 초상화를 사용하지 말고 신주(神主)를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을 강조했다. 그런 연유로 초상화 제작에 소극적이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최근에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문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동춘당 덕의 송진흙(宋晉欽:1703~1770)과 제월당 덕의 송재경(宋載經:1718~1793) 선조들의 초상화 두 점을 발견하고 종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송진흙(宋晉欽 : 1703~1770)

송진흙의 초상화는 2001년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펴낸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를 보다가 우연이 발견하였다. 송진흙은 동춘당 준길의 현손으로 자는 덕소(德昭)로 밀양도호부사를 역임했다. 그는 당시 대중중 공사원으로 재직 시에 제기를 장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목사공 송요년의 제기는 본래 모두 늦그릇이었는데, 전부 분실되어 영조 41년(1765) 송진흙이 공사원을 맡고 있을 때 문중 돈 7관을 보충하여 다시 제기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때 송진흙은 문중의 재력이 적어 훗날에 분실될 우려가 있어 제 기록을 작성하였다.

또한 성주 군수 송시연은 송진흙을 이르기를 전배 풍류 선대 문장(前輩 風流 先代 文章)이라 극찬했다.

초상화가 있는 「계미동경소진첩(癸未同庚小眞帖)」은 1703년(숙종 29) 계미년(癸未年)에 태어난 7명의 동갑 문사들의 초상화와 서문으로 엮은 계첩(契帖)으로서 비단 바탕에 수묵채색으로 그렸다. 녹색 비단의 표지에 흰색 비단에 쓴 “계미동경소진첩(癸未同庚小眞帖)”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초상화 각 폭의 크기는 대략 세로 26.6cm, 가로 34.5cm이며,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품으로 2010년 6월 17일서울특별시의 유형문화재 제308호로 지정되었다.

이 화첩을 펼치면 오른쪽 면은 비어있고 참판 이익진(李翼鎭, 1703~?), 판서 조영진(趙榮鎭, 1703~1775), 참판 이규채(李奎采, 1703~?), 영의정 한익모(韓翼謨, 1703~?), 부사 송진흙(宋晉欽, 1703~1770.7.16), 영의정 신만(申晩, 1703~1765), 유언술(兪彦述,



▲ 송진흙의 초상화

1703~1773) 등 7명의 반신초상(半身肖像)이 순서대로 실려 있다.

각 화면의 오른쪽 위 끝에 부사송공휘진흙(府使宋公諱晉欽)이란 식으로 주인공의 관직과 성명을 묵서했다.

아무런 설명이 없는 마지막 폭은 서문을 쓴 유언술로 생각된다. 이어서 1771년(영조 47) 10월 상순에 유언술이 쓴 서문이 4면을 차지하고 있다.

『계미동경소진첩』을 만든 경위와 의의에 대한 유언술의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소진첩(小眞帖) 중의 사람들은 한 해에 태어났고 한 나라에 살며 어려서도 좋아하는 것이 같았고, 장성해서도 숭상하는 것이 같았으며 승침영락(升沈

榮落)에 출처가 같았고 산함감고(酸鹹甘苦)에 기미(氣味)가 같아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15명이 30년을 하루 같이 지냈으니 마음이 같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는가? 소진첩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43세가 되는 1745년(영조 21)에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첩중(帖中)의 사람들이 나이가 아직 젊어서 혹은 벼슬하느라 분주하고 세상의 일에 빠져 소진첩 만드는 일을 하지 못하였다. 어언 수십 년 이래로 7명이 잇따라 사망하고 생존자는 다만 8명뿐이다.

마침내 생사에 마음이 움직여 각자 조그마한 초상화를 그려 소진첩을 만들려고 하였다. 소진첩이 완성되기도 전에 3명이 또 세상을 떠나 지금은 5명만이 백발로 만나고 있으니 알 수 없는 인생사 이와 같도다. 같은 해에 태어난 자는 죽는 날도 당연히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15명에서 8명으로 8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5명도 모두 나이 70여 세이니 죽을 날이 머지않음을 알 수 있다.

후일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 소진첩 중의 자손들이 초상화를 보고 그 마음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니 어찌 소진첩 만드는 일을 중지할 수 있겠는가.

8명의 초상화를 각각 이름 아래에 붙여 소진첩을 만들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서문으로 삼는다.”

- 1) 은진송씨 초상화로는 우암 송시열 선생, 구한말 풍야 송정희 입재 송근수 연재 송병선 심석재 송병순, 난곡 송병화 등 6분의 초상화가 전해져오고 있다.
- 2) 『덕은가승』 1, (송정희 편저), 242쪽 을유(乙酉: 영조 41, 1765)년 봄에 진흙이 마침 공원의 책임을 맡고 창거 받아 문중(門中) 돈 7관을 보충하여 양위 제기를 장만하였으나 유기는 적었고, 목기가 많았으며 제도와 모양도 투박하였다. ... (중략) ... 제사를 마친 후에 설 행한 자손은 점검하고 씻어 일일이 수량을 대조하여 계중(櫃中)에 간수하고 봉함하여 마음대로 출납하지 말도록 하여 분실과 훼손을 막도록 한 것이다. 제기의 수량은 한 책자에 나누어 기록하여 훗일에 상고할 자료로 삼을 것이다. 을유(乙酉: 영조 41, 1765)년 9월 하순 9대손 진흙은 기록한다.
- 3) 『덕은가승』 1, (송정희 편저)

〈신간안내〉

동춘당문정공파 송성빈 회고록 발간

송성빈(宋成彬)은 은진송씨 24세손으로 2024년 5월에 “왕따 도련님의 해방일지”라는 회고록을 발간하여 5월 31일 대덕문화원 2층 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그는 이 회고록을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 나를 키워주고 성장시켜 준 그 고마움에 대한 나의 마음이다. 살기 위해 아등바등 몸부림치면서 겨우겨우 속박으

로부터 해방되어가는 서생의 자전적 이야기로 회오와 반성의 기록이다”라고 표현하였다.



▲ 송성빈 회고록

1950년 대전시 동구 주산동에서 태어나고 자라 37년간 대전, 충남에서 역사교사로 봉직하다 정년 퇴직 후 현재 충남향토연구회, 대전향토문화연구회, 회덕향교 장의, 은진송씨 종보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충무유사 송인집)

〈정정 보완합니다〉

지난 7월 종보 제201호 5면 ‘『송자대전』 간행 과정’에서 첫째 줄 맨 아래 ‘4. 『송자대전』 간행 과정[1787년(정조 11)]’ 첫 문장부터 2번째 줄 ‘상단의 제자는 송환경이 썼다’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송자대전』의 본격적 간행은 정조의 명으로 1787년(정조 11) 우암 선생 탄신 3주갑(180년)에 맞춰 9월 지금의 평양에 있던 기영(箕營: 평양 감영)의 평안감사 조경(趙敬)에게 “비록 대현이 쓰다가 버려진 글이라도 다 수집하여 대전을 만들어라.” 명해서, 선생의 5대손 환기(煥箕)가 사우(士友)들과 같이 빠진 문자를 수습하여 정본(正本)을 만들었다.

평안감사 조경(趙敬)이 봉급에서 1만 께미를 희사(喜捨)하여 각자(刻字)를 맡기려 하던 차에 감사에서 물러남으로써 (1787년 하세하여) 후임으로 감사 이명식(李命植)이 부임함에 따라. 조경이 미처 이루지 못한 출판

을 마쳤다. 총 236권(원편 215권, 목록 2권, 부록 19권), 102책의 방대한 분량으로 이 것이 기영본(箕營本) 판 『송자대전』이다. 제자(題字)는 본 손인 송환경이 쓰도록 했다.

『송자대전』은 평안감사로 있던 조경(趙敬)과 이명식(李命植)에 의해 간행되었다. (『연보』, 『국역 송자대전』 13, 319쪽, 송자 사상 선양사업회)

은진송씨 선조가 모셔진 서원 사우 (18회)

송창공파 공사원 송 구 영

XV. 성천서원(星川書院)

1. 현황

-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924
- 배향인물 : 송준길(宋浚吉) 이숙(李翺) 송명흠(宋明欽)
- 창건년도 : 1703년(숙종29)
- 향 사 일 : 매년 음력 4월 15일

2. 연혁

- 1703년 함양군 안의면 후암리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당시 안의 현감 정중만이 성천서원을 건립하고 동춘당 송준길을 배향함
- 1716년 일휴당 이숙을 추배함
- 1844년경 현재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로 이전
- 1868년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됨
- 1950년 6.25 동란 때 월성 초당 소실
- 1977년 초당계에서 서원터에 동춘당 송준길 월성초당 유허비를 건립
- 2000년 거창군청의 지원과 지역 유림 등의 성금, 동춘당 문정공 종중의 협찬으로 사우를 건립함

3. 인물 약전

(1) 송준길(宋浚吉 1606~1672)

동춘당의 인물 약전은 송현서원 흥암서원에서 자세하게 기술한 바 있어 종보 제200호 제201에 이어 이번 호까지 동춘당의 예학 사상 중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논한 것 중에서 일부인 예설과 예사상을 발췌하여 이해를 도우코자 한다.

조선 시대 예가(禮家)의 예학 사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예서와 예설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동춘당의 경우 예학적 명성과는 다르게 별도의 예서가 제작된 바 없고 또

한 한 권의 예 문답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중간에 분실되어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동춘당의 예학 사상연구는 우선적으로 동춘당의 예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김장생과 김집의 예 문답서에서 발췌하여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장생의 의례문해 김집의 의례문해속에 산재해 있는 동춘당과 김장생 동춘당과 김집과의 예 문답의 내용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면 동춘당은 가례도(家禮圖) 4건, 사당례(祠堂禮) 5건, 상례(喪禮) 141건, 제례(祭禮) 75건, 도

합 225건으로 우암의 관혼례(冠婚禮) 3건, 상례 17건, 제례 2건으로 32건과, 이유태의 관혼례 5건, 상례 28건으로 31건인 것은 이를 통해 호서예학과에서 동춘당의 예학적 위상과 역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장생의 의례문해는 전체 예 문답의 44%가 동춘당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문예(問禮) 비율이 우암이나 이유태의 그것을 합친 것의 4배가 넘는다는 것은 김장생의 예학 형성에 있어서의 동춘당의 역할과 위상 또 호서예학에서의 예학적 위상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적 수치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동춘당의 예 문답은 수준이 높고 장문의 예 문답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 문답에는 자연히 질문자의 예 의식이 폭넓게 개진되고 이에 대한 자상한 대답이 많이 담겨 있다. 이러한 예 문답은 동춘당의 예학 형성은 물론 김장생 예학의 형성과 정리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적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동춘당은 사계 예학의 적전(嫡傳)이면서 동시에 사계 예학 형성의 가장 중요한 협력자의 한 사람이었다고 이해된다.

동춘당은 가례 중에서도 주로 상례에 치중되어 있었음은 사상(死喪)의 변고는 천리(天理)가 인정(人情)의 망극한 일이어서 선왕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이었고, 그 후박(厚薄)의 등급과 융살(隆殺)의 절차는 결코 혼란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동춘당이 상례 연구에 치중한 근원적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상례(喪禮)는 생자(生者)가 사자(死者)에 대한 영결(永訣)을 고하는 엄숙한 예이므로 자연히 효심 등 인정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예제(禮制)였고 따라서 의식절차도 그만큼 복잡하고 섬세했다. 그러나 그것은 줄지에 당하는 것이고 또 제례(祭禮)와는 달

리 한번 밖에 치를 수 없는 것이어서 어렵고 잘못되기 쉬운 예제였다. 그러므로 상례의 의미를 충분히 체득하게

하고 이에 바탕하여 상례를 원만하게 치르게 하는 것은 효심을 불러일으키는 지름길이며 이를 통해서 예 의식을 고양하고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윤리 질서의 재건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것인바 동춘당의 상례를 강조한 이유 또한 산림(山林)으로서의 시대적 책무와 무

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춘당이 상 제례에 대한 비중을 가장 크게 둔 또 하나의 배경은 도통적 학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도통적 예서인 주자의 가례(家禮)는 주자의 교정을 거치지 못한 미급재수지서(未及再修之書)였고, 주자의 만년예서인 의례경전통해의(禮經傳通解儀) 상 제례 역시 주자가 미쳐 정리하지 못하고 문인 황간에게 위촉한 것이어서 그 정확성이 논란될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상 제례 연구는 당시 가례 연구의 일반적 경향이기도 하였지만 특히 호서 예 학파의 경우에는 도통의 예학의 보완과 완성, 나아가 조선 예학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그 연구가 더욱 심화되었는데 김장생과 김집의 예 문답서는 그 정수였고 동춘당은 이들과 함께 그 중심에 선 예학자였다.

(2) 이숙(李翺 1626~1688)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우봉(牛峯) 자는 중우(仲羽) 호는 일휴정(逸休亭)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송시열에게 수학하였고 1636년 병자호란 때 11살의 나이로 포로가 되어 심양에 끌려가 회은군(懷恩君)의 도움으로 귀국했다. 1648년 진사가 되고 1655년 춘남대문과에 급제하고 1669년 광주 부윤에 복귀한 데 이어 경상도 관찰사 대사간 등을 역임했다.

1674년(숙종즉위)에 제2차 예송논쟁에서 남인의 3년 복상이 승리하여 서인이 실각하면서 파직 당했다

1680년에 경신 대 출척으로 남인들이 실각하고 서인 정권이 다시 들어 서자 이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했다.



▲ 동춘당송선생월성초당유허비

대구 상덕사(尙德祠)에 배향되었다.

(3) 송명흠(宋明欽 1705~1768)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은진 자는 회가(晦可) 호는 늑천(櫟泉)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아버지는 묵옹공(默翁公) 송요좌(宋堯佐)이고 어머니는 윤부(尹扶)의 딸 파평윤씨이다. 동춘당 송준길의 현손으로 도암 이재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1720년 16살 때 김육의 현손인 김도흠의 딸 청풍김씨와 결혼하였다.

1722년(경종2)에 신임사화가 일어나 고모부인 김창집의 아들 김재경이 유배가서 죽고 사화를 피하여 낙향하는 아버지를 따라 옥천으로 왔다가 다음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3년 상을 지내고 도곡 송촌 등지로 옮겨 다녔다.

1739년(영조15) 공릉 참봉에 제수되었다가 왕세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바른 선비를 뽑는데 추천되었다.

1755년(영조31) 옥과 현감으로 나갔다가 8월 17일에 왕세자를 뵈고 대학을 강의하였고 1763년(영조39) 부호군으로 재직할 때 경연 서연에 나아갔다. 그해 3월 3일 경연에서 권극을 죄주고 김시천 윤시동 서형수 유당을 석방하기를 청하다가 영조의 비위를 거슬러 3월 5일 하직 인사도 안하고 낙향하였다.

1768년(영조44) 주변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파직되어 지내다 7월 13일 도곡에서 졸 하였다.

1823년(순조3)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성균관 좌주 자의 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이 증직되었고 1805년 1월 7일 文元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다음 호에 계속)

종보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중회에서는 종보를 통하여 종인 독자 여러분께 종중의 발전을 홍보하고 은송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종보의 발간을 위하여 종인들이 적극적으로 종보 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사 제보를 요청합니다. 보내 주신 원고는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게재하겠습니다.

- 다 음 -

1. 내용 :

- 1) 각 파종중의 회의, 행사, 재실이나 산소 정화 등
- 2) 학위취득이나 각종 시험 합격
- 3) 승진, 전보, 임관, 개업 등
- 4) 각종 미담 사례 등
- 5)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관련 사진 첨부.

2. 보낼 곳 :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61, 원일빌딩 6층 은진송씨대중회

팩스 042-633-0531 / 이메일 ejs0835@hanmail.net

3. 연락처 : 전화 042-256-0835



▲ 성천서원 전경

* 종중을 아껴주시는 깊은 뜻에 감사드립니다. *

현성금 및 장학금 납부자 명단 (2024.6.25~8.14)

◆ 대종회 장학성금

송영훈 대전 유성구 진잠로 1,000,000
송석근 대종회장 200,000

◆ 고액 현성금(연회비) 납부자

송윤택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0,000
전보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200,000
송상용 7월 11일 농협 입금 100,000
송인봉 대전 대덕구 덕암로 100,000
송진무 서울 서초구 방배선행로 100,000

◆ 종중 및 종친회 연회비 납부자

● 제월당문회공파종중 500,000

송봉섭 대전 서구 가정로
송구영 대전 동구 계족로
송인무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송인덕 대전 유성구 진잠로
송범섭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송인수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송경영 대전 서구 청사로
송인승 대전 서구 둔산로
송인만 서울 금천구 독산로
송인창 대전 서구 청사로
송원섭 대전 대덕구 대전로
송태섭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송만영 대전 중구 평촌로
송호영 대전 동구 동부로
송수영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송철영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송석봉 대전 서구 복수동로
송인춘 대전 유성구 외삼로
송석화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송인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길
송인성 서울 관악구 관악로
송인명 대전 동구 세천공원로
송오영 충북 보은군 보은읍
송명섭 대전 유성구 외삼로
송인국 충남 공주시 반포면

● 삼가공파 승지공종중 500,000

송인덕 대전 동구 대전로
송석태 대전 중구 대종로
송덕용 대전 동구 금산로
송일영 세종 국책연구원 1로
송현주 대전 중구 태평로
송인학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
송형용 대전 동구 계족로
송석중 대전 동구 옥천로
송석돈 대전 동구 대전로
송석장 대전 동구 대전로
송인욱 세종 시청대로
송인호 대전 서구 계룡로
송필영 대전 서구 청사로
송인호 대전 동구 산서로

송인규 대전 동구 산서로
송석주 대전 대덕구 신상로
송두영 대전 서구 신갈마로
송부영 대전 유성구 덕영로
송석관 대전 중구 산성로
송웅영 대전 동구 대전로

● 진산공파종중 200,000

송구호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송경호 대전 중구 중앙로
송용호 경북 의성군 다인면
송재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중앙로
송동호 대전 대덕구 송촌마로

◆ 개인 연회비 납부자

서울특별시
송치웅 서울 강서구 강서로 20,000

대구광역시
송철수 대구 달서구 송현로 50,000
송인규 대구 동구 율하동로 50,000
송인호 대구 서구 국제보상로 50,000

인천광역시
송용인 인천 강화군 길상면 20,000

광주광역시
송복남 광주 광산구 삼도대봉길 20,000

대전광역시
송진택 대전 서구 외금곡길 50,000
송길순 대전 대덕구 비래서로 30,000
송영수 대전 동구 가양로 30,000
송윤영 대전 유성구 과학성장로 30,000

경기도
송봉성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궁중친회) 50,000

강원특별자치도
송영근 강원 강릉시 한밭골길 20,000

충청북도
송재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종고개로 30,000

충청남도
송영재 충남 계룡시 서금암길 50,000

전라남도
송이석 전남 신안군 암태면 20,000

성명 및 주소미상
송현주 7월 18일 하나은행 10,000
송인광 8월 1일 하나은행 20,000

현성금(연회비) 협조안내

격월로 발행하는 종보는 종인들께서 납부하신 현성금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뜻있는 종인께서는 현성금 협조에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금 납부계좌]

- 하나은행 : 609-233549-00205 - 농 협 : 351-1084-0817-03

기타안내

[지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은 관계로 주소 확인이 불가하오니 입금 시 독자번호와 이름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현금 입금 시 대종회로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대종회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제15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참여 안내

제15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대전광역시 중구청 주최)가 다음과 같이 개최 되오니 각 파 종중의 많은 관심과 특히 대전지역 파종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은송을 빛내 주기 바랍니다.

1. 축제기간 : 2024. 10. 11.(금) ~ 13.(일)
2. 장 소 : 효월드 뿌리공원(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산 34)
3. 행사내용 : 축제 프로그램 발표후 안내 예정
4. 우리 은진송씨 참여 행사계획
1)일시 : 10월 12일(토) 10:00 ~ 12:00
2)문중 집결장소 : 하상주차장 앞 효문화진흥원(예정)
3)각 파종중에서는 5명 이상의 종인이 참여하여 은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행사계획은 별도로 각 파종중에 통지하겠습니다.

뿌리공원전국문중협의회 제2회 시화전 공모 안내

2024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제15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맞이하여 제2회 뿌리와 효문화 시화공모전이 개최되오니, 종인께서는 응모하기 바랍니다.

1. 응모부문 : 문중의 뿌리와 자랑스러운 효(효자,효부)에 관하여 창작한 시, 시조, 산문시, 기행시를 담은 작품
2. 신청방법 : (사)뿌리공원전국문중협의회 홈페이지(www.fakpp.kr)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3. 작품규격 : 세로로 제작(500mmX1,200mm) 사진파일로 제출
4. 접수기간 : 2023.08.15. ~ 9.13. 18:00까지
5. 접수방법 : 이메일(tcen7@daum.net)로 사진파일 첨부물 접수
6. 심사발표 : 2024.09.20. 심사 결과 개별 통보
7. 안내문의 : 중도문인협회 010-6414-3317

<정정보도>

제 201호 기사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구분	정정전	정정후
2면 『목사공종중 발전을 위한 선적지 순례』기사 오른쪽 13번째 줄	송병문 (동춘당의 아들)	송병문 (동춘당의 맏손자)

<좋은 글>

타인에 대한 험담

어느 날 한 청년이 무척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와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나쁘고 어리석은 녀석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 네가 남의 이야기 하려면 세 가지를 자문해야 한단다.”
어리둥절해진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 네가 하려는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냐?”

아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전해 들었을 뿐인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선(善)한 내용이냐?

그 이야기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선’한 것이어야 한다.”

“글쎄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 번째로, 너의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것이냐?”

아버지의 물음에 아들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진실’한 것도, ‘선’한 것도,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면 그만 잊어 버리거라. 또한 중요한 것은 남 이야기는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단다.

타인에 대한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단다.

욕을 먹는 사람과 욕을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는 사람은 험담을 한 ‘자신’이란단다.”

(총무유사 송인집 옮긴글)

= 恩宋의 文化財 (26회) =

72. 부강 보만정 및 금담서원 묘정비

- 종 목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자료 제10호
- 분 류 : 유적건조물/주거생활/조경건축/누정
- 수량/면적 : 정자1동, 비1기/2,746.5㎡
- 지 정 일 : 2012.12.31.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712-3
- 소 유 자 : 은진송씨 동춘당문정공파종중



▲ 묘정비와 금담서원 전경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의 후학들이 그의 학문과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금담서원(黔潭書院)의 묘정비와 강학 공간으로 이용했던 정자인 보만정(保晩亭)이다.

보만정은 원래 현종 10년(1669) 동춘당 송준길이 학문을 연구하며 여생을 마치고 이곳 검담에 세운 정자이다. 숙종 20년(1694)에 송준길을 기리기 위해 금담서원을 세웠는데, 이 때부터 보만정은 금담서원의 강학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 보만정 편액

고종 8년(1871) 서원이 훼손될 때 함께 없어졌다가 1920년대 초 다시 세워졌다. 보만정은 앞면 3칸, 옆면 3칸 규모로 내부에는 방이 있고, 대청마루와 툇마루가 있으며 방의 뒷면에 서고가 있다.

이 서고에는 동춘당 문집 판각(板刻)이 보관되어 있었다.

보만정 앞뜰 가운데에 서 있는 금담서원 묘정비는 받침 부분과 몸돌, 머릿돌로 이루어져 있다. 영조 42년(1766)에 세워진 것으로 김원행(金元行)이 글을 짓고, 후손인 늑천 송명흠(宋明欽)이 썼다.

보만정은 조선 후기 강학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건축적으로는 조선 후기에서 일제 강점기로 접어드는 과정에서의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묘정비는 금담서원의 내력 및 동춘당 송준길의 일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다.

73. 송병선 연재 문집 목판

- 종 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12호
- 분 류 : 기록유산/서각류/목판각류/판목류
- 수량/면적 : 53권 24책
- 지 정 일 : 1996.03.11.
- 시 대 : 1906년
-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송병선 연재 문집 목판(宋秉璿 淵齋文集 木板)은 한말의 문신 송병선 선생의 문장·시·행장 등을 판각한 목판본으로 53권, 1942매로 구성되어 있고 문집은 1906년에 후손과 제자들이 간행하였다. 송병선은 뛰어난 학문과 덕행으로 고종의 스승이 되었으나 관직에는 별 뜻이 없이 오직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서울로 올라가 시정 개혁과 일본에 대한 경계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고향으로 강제 압송되었다.

송병선은 그 울분을 참지 못해 스스



▲ 연재 송병선선생 문집 책판 장판각

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를 기리기 위해 문집 목판이 제작되었다. 문집에는 왕도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내용과 유학을 부흥하여 시정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집은 성리학의 정통을 이은 저술로 평가받고 있다.



▲ 문집 책판

74. 송정렴 존양재 문집 목판

- 종 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48호
- 분 류 : 기록유산/서각류/목판각류/판목류
- 수량/면적 : 90매
- 지 정 일 : 1985.11.14.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황간옥천로 1558, 합천박물관
- 소 유 자 : 은진송씨 충순위공파종중

조선 중기의 문신인 존양재 송정렴(1612~1684)의 시문을 모아 간행한 문집을 새긴 6권 3책의 책판이다. 송정렴의 본관은 은진(恩津)이고 충순위공파. 자는 계맹(繼孟), 호는 존양재(存養齋). 아버지는 진사 송익(宋翊)이며, 어머니는 덕은임씨(德恩林氏)로 임승근(林承謹)의 딸이다. 정온(鄭蘊)의 문인이다.

효종 6년(1655) 과거에 합격한 뒤 성균관학유, 사헌부감찰, 예조정랑 등의 벼슬을 했고, 주로 남인 계열의 사람들과 지냈다. 기장현감으로 있을 때에는 훌륭한 치적을 남기기도 했다.

문집의 서문은 당시 영

남 학자의 대표자인 갈암 이현일(1627~1704)이 썼다. 이 문집은 원고를 백수십여 년 간 간직해 오다가 고종 때 와서 성재 허전이 발문을 붙여서 1901년 그 후손들이 간행한 것이다.



▲ 존양재 문집 목판